

회원사 소식

데이콤, 신사옥 입주식 “테헤란로 제2의 도약”

데이콤이 용산시대를 접고 정보통신의 메카로 자리잡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제2의 도약을 시작한다. 데이콤은 28일 데이콤이사회 의장인 이문호 LG캐피탈 부회장과 객치영 전사장을 비롯, 고객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테헤란로 신사옥 입주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건립된 데이콤 본사에는 경영계획본부를 비롯한 기획관리부문과 IMT2000 등 신규사업, 그리고 그동안 용산사옥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천리안/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부문이 입주하게 되며 이들이 데이콤의 제2의 도약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본사로 활용해 왔던 용산사옥은 기업영업단과 매스영업단 등 영업부서와 통신운용부서들이 입주, 영업총괄기지와 통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콤의 제2도약의 교두보가 될 테헤란로 데이콤빌딩은 1100억원의 투자와 2년여의 공사 끝에 건립된 지상 20층 지하7층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1인당 100Mbps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설비와 음성사서함(VMS) 등 부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전자동 구내교환기를 갖추고 있다.

데이콤인터넷내셔널, 인터넷폰·콜투게더 사업 분사

데이콤인터넷내셔널(대표이사 박재천)은 지난해 2월부터 전개해온 인터넷폰사업과 다자간 전화회의서비스인 「콜투게더(Calltogether)」 사업을 분사시켜 각각의 독립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데이콤인터넷내셔널은 네트워크통합(NI)과 벤처기업 보육을 주력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폰사업과 관련, 금년 1월 초 e플래닛(대표 조순영)을 설립한다는 계획 아래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플래닛은 데이콤인터넷내셔널이 현물과 주식을 묶어 일부 출자하고 10여명의 임직원이 자본에 참여, 30억원의 자본금을 총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플래닛은 뚜렷한 특성없이 난립하고 있는 국제전화사업에서 탈피, 새로운 개념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에 충실한 국제전화료를 설정, 이익창출과 사업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콜투게더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될 콜투게더주식회사(대표이사 이병철)가 맡기로 했다. 콜투게더서비스는 최대 200명까지 동시에 연결, 전화회의를 할 수 있으며 국내외는 물론이고 접속번호만 부여받으면 일반전화와 이동전화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콜투게더주식회사는 앞으로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콜투게더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드림라인, 광통신망 1만km 구축

드림라인(대표이사 김철권)은 1000억원을 투입, 전국 일원에 총연장 1만km에 이르는 자체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 회선 임대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드림라인은 망 안정성을 위해 환형구조라는 독특한 형태로 서울과 지방 6대 도시에 광케이블을 포설, 서울은 23개 구별로 각각 1차 링을 구축하고 강남과 강북에 대형 2차 링으로 우회통신수단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김철권 사장은 『금년에 1만km에 이르는 광통신망을 추가,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종 초고속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국내 제2의 통신사업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연400억~500억 투입 인터넷 콘텐츠 개발”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는 올해부터 인터넷 콘텐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 400억~500억원을 투입, 인터넷 콘텐츠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여개의 게임 개발업체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게임을 개발해 올해부터 온라인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서비스로 운영하는 「M4you」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화번호 1500개 원터치로 다이얼링 새 전화기 개발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가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최대 1500개 전화번호를 원터치로 자동 다이얼링할 수 있는 키폰(모델명 DS3020S)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16MB 메모리칩을 내장, 전화기에 전자수침기능을 채택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전화한 번호 30개를 기억해 재다이얼링할 수 있고 간단한 전자계산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전화기를 교체할 때 전화번호 DB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모든 디지털 교환기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2라인 16자리를 제공한다. 판매가격 30만원 내외 예정.

아이네트, 초대형 데이터센터 만든다

아이네트(대표이사 허진호)는 기업 인터넷 호스트를 1000개 이상 유치할 수 있는 3000평 규모의 초대형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올해 1월 30일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현재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건물을 매입, 네트워크공사와 함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중으로 금년 2, 4분기 안에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신속되는 데이터센터를 기업시스템 호스팅 및 ASP 전문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인증서비스, 물류지원체계,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솔루션 검증과 함께 미국본사인 PSI넷을 통해 세계적인 솔루션업체들과도 협력을 모색중이다.

특히 이번에 설립되는 데이터센터의 내부시설 및 장비, 운영 등 모든 체제를 PSI넷 기준에 맞춰 구축돼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전 지역 호스팅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SI넷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서울-도쿄-홍콩에 걸친 강력한 데이터센터망을 확보하게 된다.

회원사 소식

아이네트의 데이터센터 신축은 8000평 규모의 데이콤 데이터센터에 이은 두번째 규모이며 PC통신 하이텔도 내년에 100억원을 투자해 2000평 규모의 데이터센터 신설을 계획중이다. 이로써 내년에는 국내에 대형 데이터센터만도 3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네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아시아지역 인터넷사업에서 한 수 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내년 중반부터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중심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겨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통신, 사내 벤처기업 “넷시큐어”와 투자 계약 체결

하나로통신(대표이사 신윤식)은 최근 자사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보안 전문업체인 넷시큐어테크놀로지(대표 김정훈)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시큐어테크놀로지(NetSecure Technology Inc.)는 하나로통신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99년 12월 자본금 6억1000만원으로 설립된 인터넷보안 관련 토털 솔루션업체로 LG창업투자와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됐다.

넷시큐어는 자체 개발한 침입탐지시스템(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을 비롯해 방화벽시스템(FireWall), 안티바이러스, PC보안, 보안컨설팅 등 인터넷과 네트워크 관련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협력업체로 넷시큐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아울러 넷시큐어의 출범을 계기로 향후 정보통신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자사의 초고속 네트워크와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통신, ADSL 15만여회선 추가 발주

지난해 12월 8만여 회선의 ADSL 가입자 회선을 구매했던 한국통신이 이달 중으로 15만여 회선의 ADSL을 추가 구매한다.

한국통신(대표이사 이계철)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고속 인터넷 회선 수요 폭주에 따라 지난달 초 8만여 회선의 ADSL을 발주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15만여 회선에 대한 구매절차를 완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설치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장비공급 중간사를 대상으로 장비기술평가시험인 BMT(벤치마킹테스트)를 실시중으로 이달 중순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곧바로 가격 입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ADSL장비기술평가시험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자체 장비로, 청호컴퓨터와 성미전자가 각각 루슨트테크놀로지스와 시스코시스템스를 장비공급 파트너로 선정해 참여함으로써 이번 입찰 역시 지난해 입찰과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와 해외 유수의 통신장비공급업체가 직접 경쟁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국통신 1차 ADSL 납품업체로 선정돼 지난해 1만5000회선을 수주했던 대우통신-알카텔 컨소시엄은 당초 기술평가시험에 참여했으나 높아진 한국통신의 가격 수준에 미달돼 테스트를 철회했으며 지난달 8만여 대를 수주했던 현대전자는 공급능력 부족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통신은 ADSL관련 장비납품업체를 향후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용 효율화를 위해 총 3~5개 업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입찰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ADSL 구매와 관련 한국통신은 ADSL 입찰이 끝나는 대로 선정된 장비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15만여 회선의 조기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매한 ADSL은 가입자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수요 적체가 해소되는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전화국별로 장비공급사별 ADSL을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별 장비공급사 구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전자, 한통에 ADSL 장비 공급

현대전자(대표이사 김영환)는 최근 한국통신과 360억원 규모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관련 장비에 대한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전자가 공급하는 장비는 올해 4월까지 전국 주요 시, 군 지역 전화국에 8만회선 규모로 설치하게 될 가입자용 장비인 ADSL 모뎀과 사업자용 장비인 DSLAM 등 ADSL서비스용 핵심 장비다.

SK텔레콤, 대입 전자지원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조정남)은 대입 수험생이 2000년 대입 지원상황과 합격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대입 전자지원 서비스」와 「대입 합격자 발표 서비스」를 2월말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입 전자지원 서비스」는 011 가입자가 지원 학교와 과를 등록하면 경쟁률을 30분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고 ARS(700-7000)로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정보이용료는 통화료에 30초당 50원이 부과된다.

「대입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KBS, MBC, EBS와 공동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 결과를 실시간 ARS로 제공하는 것으로 011 가입자는 700-4000, 700-2444, 700-4988로 접속한 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정보이용료는 30초당 100원이다.

LG정보통신, 中 CDMA WLL시장 진출

LG정보통신(대표이사 서평원)이 국내 업계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무선가입자망(WLL: Wireless Local Loop) 합작법인을 설립, 시장진출을 본격화한다.

이 회사는 이번주 초 서평원 사장이 중국 광둥성을 방문, 광저우 우전통신설비창 차이진강 총경리 및 광둥통신과학기술연구원(GTAST: Guangdong Telecommunicatio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류크 준 원장 등과 CDMA 무선가입자망 시스템 생산 및 판매 합작법인인 LG-TOPS(Guangdong

회원사 소식

LG-TOPS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 Ltd.) 설립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양측은 약 1600만달러를 투자해 광저우에 CDMA WLL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을 세워 2000년 상반기까지 생산시설 구축을 마치게 된다. 이어 하반기부터 연 100만회선 규모의 시스템 생산에 나선다. LG정보통신은 이미 지난해 9월 광둥성 광저우시와 쓰촨성 청두시에 CDMA WLL수출계약을 체결, 다음달 2월중 개통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중국내 합작법인인 LG-TOPS는 LG정보통신 주회석 상무보가 총경리를 맡아 2명의 중국인 부총리와 함께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생산되는 제품은 LG-TOPS라는 브랜드로 시스템 위주로 생산하게 되며 이를 단말기 생산으로 이어가면서 향후 3년 이내에 중국내 CDMA방식 WLL 시장점유율을 1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LG정보통신, 900MHz 유·무선전화기 출시

LG정보통신(대표이사 서평원)은 기존 유무선전화기에서 탈피, 본체에도 바(Bar)타입의 무선전화기를 채택한 900MHz 유무선 자동응답전화기 「LG테크폰」(모델명 GT9771)을 이달 1일부터 본격 판매한다.

이 제품은 플립(Flip)타입의 무선 휴대단말기와 본체용 무선전화기 및 스피커폰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1대의 전화기로 3대를 보유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전원이 끊겨도 응답메시지를 비롯한 각종 입력정보가 보존되는 디지털신호처리(DPS)기술을 채택했다.

이밖에 정전시에도 1시간 동안 연속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절전 회로를 내장했으며 모닝콜, 음성전화번호부, 광다이얼, 통화내용녹음, 자동발신기능 등이 있다. 예상판매가격 30만원대. 문의 (02)2005-4913 ~5

LG텔레콤(주)시큐리티 진돗개 전략적 제휴 체결

LG텔레콤(대표이사 남 강)은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전문업체인 (주)시큐리티 진돗개(대표이사 이종수)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PCS폰을 이용, 보안은 물론 응급구조, 화재·가스누출 위험 해소까지 활용할 수 있는 '019 전자방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수십여개의 무인 경비업체들이 있지만 침입자가 유선이나 LAN으로 설치된 보안망을 끊거나 출동 간극을 이용해 짧은 순간에 물건을 털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LG텔레콤과 (주)시큐리티 진돗개는 유선망이 끊어질 경우라도 즉시 019 PCS무선망을 활용하도록 해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 보호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령 침입자가 유선망을 끊고 침입할 경우 보안시스템 안에 설치된 센서가 PCS폰으로 연결돼 자동으로 상황 관제실에 이를 통보해 주며, 관제실은 PCS폰을 통해 음성으로 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단 침입자(무응답, 암호해독 실패 등)로 확인되면 관제센터는 비상출동 외에 원격제어 장치로 경보 사이렌과

함께 가스탄을 침입자에게 발사하게 된다.

한편 (주)시큐리티 진돗개의 보안시스템에 내장되는 PCS폰은 LG텔레콤이 그동안 수거했던 중고PCS폰(LGP-1000F)으로 외화 및 자원절약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고 PCS폰들은 LG텔레콤이 완벽한 검증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에 이른다.

LG텔레콤은 (주)시큐리티 진돗개와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PCS폰과 무선망을 활용한 방법범위를 더욱 확대해 유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보안이 요구되는 외곽지역의 창고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음성신호 외에 문자메시지도 동시에 중앙 관제실에 통보하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해나갈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건물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2평 아파트의 경우 초기 설치비는 대략 10만원 내외이며,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가 월 6만원선 내외이다.

LG텔레콤의 법인영업팀의 장경호 차장은 "유선망에 대한 불안감을 PCS를 이용한 무선망이 완벽하게 대체하게 됨으로써 현금을 다루는 금은방, 약국, 편의점, 미장원, 개인병원 등의 폭발적 수요가 예상된다"며 "2000년까지 보안시스템을 통해 3만여대의 PCS폰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쯔, 대용량 휴대용 저장장치 USB-SCSI MO 출시

한국후지쯔(대표이사 안경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용량 휴대용 저장장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USB용 신제품 광자기디스크드라이브 DynaMO 640SD와 DynaMO 1300SD를 발표했다.

USB용 MO는 다른 USB전용 장치와는 달리, 기존 SCSI 인터페이스의 DynaMO SD시리즈에 USB변환 cable을 연결해 SCSI CARD가 설치된 System과 그렇지 않은 PC나 Notebook, Mac에서도 간단히 설치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휴대성이 강화되었다. USB용 MO는 처음 설치만 하면 별도의 재부팅이 필요없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며, 별도의 전원장치가 필요없다. 성능면에서도 SCSI로 사용할 경우에 버금가는 성능을 나타내며, 기존의 MO미디어(128MB, 230MB, 540MB, 640MB, 1.3GB)와도 완전하게 호환된다.

MO는 최고 1.3GB의 고용량, 고성능과 뛰어난 안전성(100만번 이상 반복기록과 40년 이상 데이터 보관, 자기장에 무관)으로 전문가 위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계속되는 MO디스크의 가격인하(약 25원/MB)와 이번 USB용 MO의 출시로 일반 PC와 MAC사용자에게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제품문의 : 한국후지쯔 Storage Product사업부 정우영 대리 (T. 3787-5645)

※ 구입문의 : 컴퓨마트 (T. 719-2580)

이정시스템 (T. 717-3036)